

경륜과 폭 넓은 식견으로 내실 다져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 연임 확정

임용택 전북은행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JB금융지주 자회사 CEO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지난 14일 차기 전북은행장 최종 후보로 임용택 현 은행장을 단독 추천했으며, 17일 임용택 전북은행장의



연임을 확정 했다고 18일 밝혔다. 임추위는 임용택 은행장이 금융에 대한 경륜과 폭 넓은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취임 이후 지역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내실을 다져왔고 이를 통해 앞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 임용택 은행장은 1952년 전남 무안 출생으로 서울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한 뒤 토러스 투자전문(주) 대표, 벤

처캐피탈(주) 대표, 메리츠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주) 대표, 페가수스 프라이빗 에퀴티(주) 대표 등을 역임하는 등 30여년 동안 증권, 캐피탈, 은행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금융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분석력, 탁월한 업무추진력으로 지난 4년 동안 전북은행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등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지역사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전북은행 임직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에게도 두터운 사랑을 받고 있다. /김영태 기자

또한 지방은행으로는 최초로 인수한 캄보디아 프놈펜 상업은행(PPCBank)은 연평균 30%이상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연 1,300만불 이상의 당기 순이익이 예상된다. 최근에는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모토로 국내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에게 금융 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용택 전북은행장은 오는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통해 제13대 전북은행장으로 공식 선임 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반려동물 유기 '범죄자' 된다... 무허가 강아지공장 단속도 정례화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계획 연내 마련

동물권 문제 일파만파... 과태료 부과 → 형사처벌로

정부가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과태료 부과 방식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동물 유기행위에 대해 경찰이 나서서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동물문제 주무부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물권 단체 '케어'에서 안락사 문제 터지면서 동물권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내놓은 개헌안이다. 지금은 동물유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이것도 그나마 100만원 이하 과태료였다

가 작년 3월 강화된 것이다. 하지만 이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지자체가 일일이 부과 대상을 찾아내야 한다. 유기한 사람을 찾지 못하면 별 의미가 없는 처벌인 셈이다.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될 경우, 앞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했다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농식품부는 이른바 '강아지 공장'으로 일컫는 동물생산·판매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생산판매업은 작년 3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는데, 정부는 지자체, 동물단체 등과 벌이는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시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주기는 연 2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서 동물을 죽을 때까지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선 지자체장이 운영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지정 취소 조처를 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엔 문제가 터졌던 사설보호소의 경우,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다음달까지 진행해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 기준월령은 더 낮아진다. 현행 3개월에서 2개월이 된다. 또 사립으로 치면 전문 격인 '비문(鼻文)'을 통해 간접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

한다. 그밖에도 농식품부는 공익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영상광고 등 다양한 매체로 동물복지 관련 내용을 집중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기동물 수가 늘어나는 나들이철, 휴가철에는 전국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문제 전담부서인 동물복지정책팀의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이 부서는 정원이 6명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의 운영개선, 동물등록 활성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화,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HAPPY WINTER 페스티벌'

농협은행, 500달러 이상 환전·송금시 푸짐한 경품 제공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겨울방학 기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2월 28일까지 HAPPY WINTER 환전·송금 페스티벌을 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페스티벌 기간 중 건당 미화 500달러 상당액이상 환전이나 송금하는 고객을 대상, 여행상품권 100만원(1명), 농산물상품권 50만원(2명), 농산물상품권 30만원(3명),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만원(300명) 등 총 306명에게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NH농협은행을 해외체재 비항공(해외유학생·해외체재자) 거래의국환은행으로 신규 지정하고, 영업점 창구에서 송금하는 고객은 전신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농협은행 계좌가 없어도 최대 90% 환율우대가 적용되는 '너도나도 환전' 출시 기념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특히, '너도나도 환전'은 고객이 올원뱅크 앱으로 환전을 신청해 생성된 가상계좌에 30분내에 입금, 고객이 원하는 농협은행 영업점을 찾아 외화실물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환전가능통화는 USD, JPY, EUR, CNY 4종이며, 1일 한도는 100만원 상당액, 월간 한도는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로 USD/JPY/EUR은 90%, CNY는 40% 우대환율을 적용,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오전 4시부터 22시까지 신청가능하다. 한편, 환전 및 영업점 창구에서 송금하는 고객에게는 ▲와이파이 도시락(포켓와이파이) 15% 할인 ▲공함철도 직통열차 1,500원 할인 ▲공함 외부보관서비스 5,000원 할인 등 다양한 제휴사 혜택도 제공한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18일 완주테크노밸리와 제2일반산업단지 토지분양중도금대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웃사랑 실천으로 승진의 기쁨 나눠요"

농협은행 전북본부, 사랑의 쌀 70포대 전달·배식 봉사활동 펼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지난 18일 올해 4급 과장 승진자와 함께 완산구 삼천동에 위치한 성예요양원을 찾아 사랑 나눔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은 승진의 기쁨을 우리 지역 사회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4급 과장 승진자 11명은 임용장 교부식을 마친 후 전주시 성예요양원과 신성양로원을 찾아 사랑의 쌀 10kg 70포대를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점심 배식을 도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특히, 봉사활동에는 김장근 본부장, 박병철 전북농협 노조위원장 등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어르신들의 점심



배식을 도왔다. 한편, NH농협은행은 7년 연속 사회공헌 1위를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나눔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전하는 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통시장 살려 전북도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

전북중기청, 전통시장 상점가 지원 정책 설명회 가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 청장 김광재)은 지난 18일 전북중기청 대강당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상인회,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설명회'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설명회는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정책의 방향과 사업별 지원 내용을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먼저 노후된 전통시장의 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시설현대화사업'과 주차장 건립·이용을 보조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올해 신규 도입되는 '바우처지원사업,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안내했다. 아울러, 상인 등 설명회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업 분야별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설명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전북중기청, 상인회, 도내 지방자치단체간의 소통과 협업을 구축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지원정책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활성화 되어 전북도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은행 전북본부 - 완주테크노밸리 '맞손'

토지분양자금 지원 협약 체결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지난 18일 완주테크노밸리(대표이사 이석봉)와 제2일반산업단지 토지분양중도금대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토지분양 면적은 산업시설용지 127만933㎡, 근린생활시설용지 2만16746㎡, 주거용지 16만15427㎡로 분양 계약을 원하는 기업체는 완주테크노밸리(주)와 분양계약체결 후 분양대금의 10%이상을 납부하고 완주테크노밸

리(주)의 용자추천서를 받으면 농협은행에서 분양대금의 최고 6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 입주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김장근 본부장은 "이번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토지분양 금융지원 협약을 통해 전북지역에 우수한 기업이 적기에 입주하여 신규 고용창출 등 어려운 전북경제가 보다 활성화 되어 성장하길 바란다"며, "분양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농협은행이 적극 앞장서 지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